



Greetings! I am Sr. Anne Toomey, known to most of you as "Cedie." I was born in the Lawrenceville area of Pittsburgh. Along with my twin and three other brothers, I attended St. Kieran Grade School and then went to St. John the Baptist High School for Girls. I was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for all 12 years. However, I was very familiar with the Sisters of Charity as a young child. Sister Bridgetta Fitzpatrick, SC, my mother's sister, was a preschool teacher at DePaul Institute. She often visited our family home.



Working in an office for two years, often thinking about my future and recalling a note that I had received from Sr. Monica Fatora, SC, my homeroom teacher for two years in High School, it read (" . . . you have beautiful red hair, BUT. . . ") I continued to pray for the courage to make the move. I entered the convent on September 8, 195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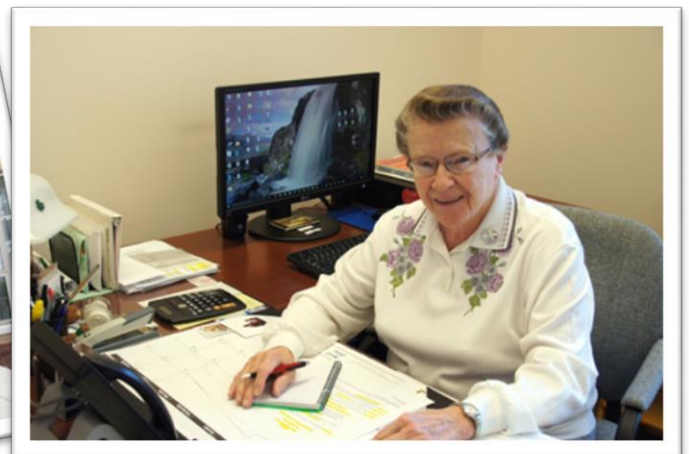


In ministry, I was always associated with Elementary Education — first as a Primary Teacher and then as a Principal for 30 years. I enjoyed the various parish schools where I served. My happiest years in school were serving in two different inner city parish schools — St. Kieran, my home parish and St. Stephen's in Hazelwood for a total of 27 years. They were my kind of people, simple, caring, straight forward and loving folks.

While at St. Kieran's I was fortunate to be one of the 25 sisters who were chosen to go to Rome for the canonization of our foundress, St. Elizabeth Ann Seton. How blessed and honored I was to be on Holy Ground when Elizabeth was declared a Saint! After serving a total of 15 years, St. Kieran School joined a merger and I volunteered to go to South Korea. What a wonderful experience to live and serve with our sisters in South Korea. After Korea, I taught for three years then it was onto St. Stephen School, as principal, for 12 years.

Now, it is almost two years since I was missioned to Caritas Christi as Sister Servant — a very new experience for me! I soon learned that I am blessed in many ways and every day is a new beginning! I rely each day on

the sisters' prayers and the Lord's company as I continue my journey trying to do what the Lord wishes and to know what is best for all.





안녕하세요? 저는 앤 투미 수녀입니다. 아마도 ‘씨디’ 수녀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. 피츠버그 로렌스빌이 제 고향이고, 집안의 유일한 딸이랍니다. 제겐 쌍둥이 오빠를 비롯해 남자 형제가 세 명 더 있어요. 성 키에란(Kieran) 초등학교와 세레자 성 요한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2년 동안 저희 수녀님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. 물론 아주 어려서부터 사랑의 씨앗 수녀님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씨앗 수녀님이셨거든요. 브리지타 피츠패트릭 (Bridgetta Fitzpatrick) 수녀님이 제 이모님이세요. 드폴



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자주 저희 집에 들르곤 하셨어요. 2년 동안 사무직에서 일하면서 가끔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보고 또 고등학교 시절 2년 동안 담임이셨던 모니카 파토라(Monica Fatora) 수녀님이 건네 주셨던 쪽지 내용을 곱씹곤 했답니다. 어떤 내용이냐고요? “.....년 참 고운 빨간 머리를 지녔거든, 하지만 말이야.....”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결심하고 드디어 1959년 9월8일 수녀원에 입회했어요.



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사도직을 했는데 처음엔 교사로, 그 다음엔 30년 동안 교장으로 지냈어요. 다양한 가톨릭 학교에서 신나게 아이들과 지냈습니다. 기억에 가장 남는 학교는 제 모교인 성 키에란 초등학교와 해즐우드(Hazelwood)에 있는 성 스테파노(St. Stephen) 초등학교 입니다. 27년을 이 두 곳에서 보냈는데 모두 도시 한가운데 있는 빈민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참으로 사랑스럽고, 소박하며, 솔직하고, 배려 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

키에란 초등학교에서 일할 때 25명의 수녀님들에게 엘리사벳 앤 씨앗 시성식을 위해 로마에 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그 중 한 명으로 뽑히는 행운을 얻게 됐어요. 시성되는 순간 거룩한 도시 로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웠는지요! 그 후 15년을 더 키에란 초등학교에서 일하다가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한국관구로 가기로 자원했습니다. 한국에서 수녀님들과 지낸 시간 역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입니다. 한국에서 돌아온 후 교장으로 12년 동안 성 스테파노 초등학교에서 일했어요. 까리타스 크리스티 원장으로 일한 지 벌써 올해로 2년째가 됩니다. 제겐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이 사도직을 하면서 축복도 많이 받았고 늘 새로운 매일을 맞고

있습니다. 제가 이 사도직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수녀님들의 기도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도로 청합니다.

